

민주 현역의원 불출마 타진...세대교체 예고

일부 중진 의원들 용퇴 움직임·수도권 물갈이설 확산 야권에도 영향...호남 중진 국회의원들 입지 좁아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 확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물갈이를 통해 세대교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중진들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는 이달 초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최종 평가를 앞두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들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공직자평가위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4조 '차기 선거 불출마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절차지만, 당이 중진 중심의 물갈이에 시동을 걸고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이해찬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역 의원 전원 경선 원칙과 정치 신인 파격 우대 내용을 담은 공천을 확정으로 '의지'는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되고 민주당의 석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런 기류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또 당에 3선 이상 중진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운동권 출신 86 그룹들도 자리를 비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5선 중진 원혜영 의원이 불출마를 검토하는 등 일부 중진의 '용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개각에서 장관으로 발탁된 4선 중진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도 예상된다. 여기에 수도권 일부 중진들의 물갈이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양정철 민주당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은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물갈이'와 '당내 균형 잡기'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양 원장과 백 부원장의 이 같은 결정은 청

와대 출신 총선 출마자들에게 '특혜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당내 '통합·원팀 정신'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문 핵심의 '백의종군'을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친문'과 '비문'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대적인 세대교체 공전에 나설 경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에 포진하며 제3지대 신당 창당 등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는 호남 중진들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세대교체를 치고 나을 경우, 미래당과 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에 포진한 호남 중진들이 적절히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민주당이 이러한 점도 충분히 감안해 총선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인사청문제도 개선 추진

가족 사생활은 비공개...당리당락 정치공세 막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당리당락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청문회가 전락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표수 수석대변인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사 검증이 아닌 개혁적 인사의 임명을 막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변질한 인사청문회 기능을 바로잡아 좋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재산형성 과정 등 공직 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

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이석현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기보다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인사청문개선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2016년 회기 시작부터 15일 현재까지 모두 51건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나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누적돼 국회는 청문회 관련법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며 2017년 7월 인사청문회개선소위원회 구성에 합심해 2018년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3년째 입법 성과가 제로다. 소위는 2018년 2월 8일 첫 회의를 열고, 2월 13일 2차 회의, 2월 20일 3차 회의를 열고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전폭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딸 조사

검찰, 논문 입시 영향 여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2주간 인턴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의혹논문을 고려해 입시에 제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합격 여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근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

조씨가 당시 제출한 입시 관련 기록들은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7일 고려대입학담당 부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중빙자료 제출목록'을 토대로 문제의 의학논문이 실제로 제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 민주당 예방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 간 조국 장관

민주·정의당·대안정치 예방...한국당·바른미래는 거부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인사청문 기간, 그 이후에도 국민 여러분과 당 대표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국민 대부분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바라지만,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그쪽

분야에 조여가 깊으니 잘하실 것"이라고 격려한 뒤, "공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이 개혁의 동력이 될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 없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 대표는 "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회에서(사법개혁) 법안 처리에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의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또 "제 가족과 관련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고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장관 측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예방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두 정당 모두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

한국당 릴레이 삭발

김문수 가세...지도부, 단식 이학재 격려방문

자유한국당은 1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외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거나 추가 삭발을 하는 등 전날 황교안 대표의 삭발로 불붙은 투쟁 동력을 살려 나가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현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투쟁'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삭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했다.

한편 조 장관 측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예방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두 정당 모두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

장하는데 안 듣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도 별도로 이 의원의 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 의원을 찾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초기 촛불의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저희가 든 촛불은 국민들의 정의와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부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의원모임 '열린 토론, 미래'에서 "조국 장관 임명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임을 국민 앞에 공포한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제 전횡의 기초작업을 분쇄하기 위한 한국당의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가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운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뷰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움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